

全身形態 診斷과 辨證施治의 連繫를 위한 章楠의 形態體質論 연구

김경철* · 이용태¹ · 신순식²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진단학교실, 1: 생리학교실, 2: 방제학교실

Study on the Jang-Nam's Constitution Theory for the Connection with "the Differentiation of Syndromes" and the General Body form Diagnosis

Gyeong Cheol Kim*, Yong Tae Lee¹, Soon Shik Shin²

Department of diagnostics, 1: Department of physiology,
2: Department of prescription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eui University

Jang Nam's opinion is that Yin-Yang of pathogenic factors change following to the Yin and Yang of human body. As the pathogenic factors injure the human body, the conditions of diseases become different to the inborn constitution of human. Therefore the main principles of remedy set up the diagnosis on the YIN · YANG & the strength · weakness of constitution. This diagnostic points are body formal distinction, flesh hardness and softness, face color and form, skin color. Moreover he arranges the 4 type of the hole-body constitution based on the Seop-Gye's the guide of clinical differentiation of syndromes(臨證指南); Yang-Strength and Yin-weakness(陽盛陰虛), Yin · Yang-strength(陰陽具盛), Yin-Strength and Yang-weakness(陰盛陽虛), Yin · Yang-weakness(陰陽兩虛).

Key words : Jang-Nam(章楠), constitution, body-form diagnosis

서 론

한방 임상학의 핵심은 변증사치이다. 그러나 이의 활용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임상학의 辨證 活用의 限界性 극복의 올바른 代案은 진정한 한의학 교육의 지표가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바로 個體 生理·病理에 바탕을 둔 辨證體系의 本來 精神을 되살려 個人의 稟賦 및 體質과의 相互連繫性에서 辨證 內容을 活用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의 誤導된 辨證은 四診중에서 問診과 切診 중심의 辨證으로 望診을 等閑視한 情報 收集 段階에서의 問題點이 있는 관계로 神形色脈症 중에서 脈症 위주의 협소한 방법이 구사되고 있으며, 따라서 情報 分析의 八綱에서도 지금의 상태로는 誤謬를 범할 수 밖에 없는 必然性이 內在하고 있다. 즉, 情報 蒐集과 分析의 段階에서 일어난 誤謬로 인하여 情報의 體系化 作業인 辨證에서는 당연히 잘못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는 환자의 稟賦와 體質로 發顯하는 個體生理·病理를 등한시한 결과이다.

神形色脈症의 全一의인 診斷은 인간 개인과 질병을 총체적

으로 分析하는 것인데, 이중에서 인간 자체의 研究는 결국 先天의인 稟賦와 體質의 內容으로까지 歸結된다. 稟賦와 體質의 內容은 韓醫學 理論과 臨床의 基本의인 事項인데, 이는 內經의 基礎 理論과 類型的인 形象 및 體質 研究에서 克明하게 나타났으며, 後代의 東醫寶鑑과 東醫壽世保元에서도 明確하게 제시되고 있다. 稟賦와 體質에 대한 個體 生理·病理論은 내부의 생체 氣의 작용과 외부의 形態의 연계를 중시한다.

問診, 切診 중심의 단순한 辨證施治의 限界性을 극복하는 代案으로써, 全身形態 診斷의 意義와 活用に 對한 研究를 통하여¹⁾ 저자는 이미 全身形態의 樣相은 病證과 함께 유기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며, 辨證施治와 마찬가지로 全身形態 診斷은 事物의 屬性에 따른 形象을 파악하는 取象의 원리로 이루어지며, 따라서 辨證施治와 形態診斷은 종합적인 合一을 이루어야만 하며, 內經에 나타난 全身形態 診斷은 類型的인 樣相을 띠면서 體形氣像을 위주로 관찰하는 陰陽論의인 시각과 容貌詞氣를 중심으로 삼는 五行論의인 입장으로 양분되고, 청대의 葉桂의 全身形態 診斷은 病證 파악에 우선하는 體質辨證論으로 행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全身形態 診斷은 問診, 切診 중심의 단순한 辨證施治

* 교신저자 : 김경철, 부산시 진구 양정동 산45-1,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 E-mail : kimkc@dongeui.ac.kr, Tel : 051-850-8649

· 접수 : 2004/01/15 · 수정 : 2004/02/20 · 채택 : 2004/03/22

1) 전신형태 진단의 의의와 활용에 대한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16권 5호

의 限界性을 극복하는 代案으로써, 望診을 중심으로 하는 辨證과 形象, 體質診斷의 合一인 의학 체계의 기틀이 된다고 생각된다. 이에 耑대 葉桂의 정신을 이어받아 體質辨證의 類型化를 시도한 章楠의 進新형태 체질론을 살펴본 바, 다소의 지적을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본 론

1. 內經과 葉桂의 정신을 이어받은 章楠의 進新 형태 체질론

章楠의 形態 診斷에 根據한 體質 辨證論의 內容은 특히 暑病의 病證을 陰陽證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과정에서 病證을 유발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患者의 體質인 特性을 명확하게 강조하는 章楠의 醫門棒喝의 條例, 六氣陰陽論에서 잘 나타나며, 더불어 人身陰陽體用論에서는 形態診斷을 통한 類型體質論까지 登場하고 있다.

그는 條例에서 河間의 ‘六氣皆從火化’를 說明하면서 사람의 體質이 同一하지 않아서 感受된 邪氣가 비록 같더라도 病變이 다르다는 점을 우선 제시하고서, 暑의 說明에서 暑는 火와 濕의 二氣가 합한 것으로 그 證에 陰證 陽證이 있고 ‘中暑는 陰證이 되고 傷暑는 陽證이 된다’고 말하는 것은 단지 火에 치우친 것은 陽證이 되고 濕에 치우친 것은 陰證이 되며, 體質이 強하면서 火가 많은 자는 陽證이 되고 體質이 弱하면서 濕이 많은 자는 陰證이 됨을 알지 못한 연유라고 주장하였다.²⁾

이런 暑邪와 暑病에 대한 說明은 六氣陰陽論에서 보다 分明하게 나타난다. 人體가 暑邪에 感觸되었을 때, 만약 타고난 體質에 火가 많으면 暑邪가 火를 좇아 燥로 변화하고 타고난 體質에 寒이 많으면 暑邪가 寒을 좇아 濕으로 변화하니 이는 邪의 陰陽이 人體의 陰陽을 좇아 변한 것이라고 六氣를 邪로 論하는 것과 病으로 論하는 것의 區分이 必要하며, 邪氣가 人體를 損傷시킬 때 사람의 타고난 體質에 따라 病의 狀態가 變化하는 점을 強調하고 있다.³⁾ 뿐만 아니라, 外感과 內傷으로 畏寒하거나 發熱하는 것은 반드시 사람으로 因하여 變하는데 虛實 陰陽이 서로 原因이 되고 영향을 미쳐서 縱橫으로 뒤섞이니 治法도 茫惝함을 좇지 않는 한쪽에 執着할 수 없다⁴⁾ 하였다.

이어서 六氣陰陽論 附問答에서는 仲景의 白虎湯이 단지 消火할 뿐이고 去濕하는 藥이 없으니 곧 暑에 반드시 濕이 있어야하는 것이 아니라는 물음에 答하기를, 暑氣와 暑病은 구분해야하는데 暑氣는 火와 濕이 서로 合하여 이루어지나 暑氣가 人體를 損傷시키는 지경에 이르면 또한 사람의 타고난 體質을 좇아서 變하는데, 體質에 火가 많으면 暑는 火를 좇아 燥로 變하며 바로 이런 燥와 火가 합한 氣가 바로 白虎湯의 證이 된다. 만약 타고난 體質에 寒이 많으면 暑는 寒을 좇아 濕으로 변할 것이니 寒과 濕이 合한 氣에 白虎湯이 마땅하지 못하고 大順散 冷香飲같은 辛熱한 方劑나, 六和湯 正氣散같은 溫燥한 方劑도 있으며, 桂苓飲 같은 濕과 火를 消하는 治法도 있어 仲景의 묘자람을 補充한다고 하여 暑病에서 人體의 體質에 의한 疾病의 變化와 이에 따른 구체적인 處方까지 提示하고 있다.⁵⁾

그리고 仲景의 “太陽中熱者 渴是也, 身熱而渴 白虎加人參湯主之”의 條文은 太陽病 中熱證에 身熱 渴症이 난다는 것으로 火가 旺盛하여 燥로 변한 暑病이 되고, “太陽中暍 發熱惡寒 身重而疼痛 其脈弦細扎遲”의 條文은 濕이 甚한 暑病으로 仲景이 處方을 적지 않았던 것은 後世에 글이 毀損되거나 缺如된 것으로 淸暑益氣湯이 適合하다는 見解에 同調하면서, 病이 사람의 타고난 體質을 좇아 變化하고 더불어 暑라는 하나의 氣가 火와 濕이 서로 合하여 이루어지게 된 점도 역시 分明하다고 하여, 다시 한번 사람 體質에 따른 病의 變化를 더욱 強調하고 있다.

이런 內容은 人體 중에 陰이 旺盛하다면 寒이 많아서 熱藥

以此推之, 六氣之變化無窮 要必隨類相反 察其陰陽而已. 然猶必知其要者 所謂六氣變化 機權 在火 如君相出令 天下皆從. 劉河間有見此理故云 “六氣皆從火化” 以寒涼藥主治.

但此理止可論邪不可論病 何故? 蓋邪氣傷人 隨人稟體而化, 如上所云 ‘稟體多火 暑隨火而化 燥 多寒 暑隨寒而化濕’ 之類. 故當隨病審察, 或不知此 而概施寒涼 豈不誤哉? 況天地六氣之火 固易傷人, 而人身君相之火 常相因爲病! 故東垣曰 “相火 元氣之賊也 火與元氣不兩立” 此謂人身之火也, 張景岳非之云 “相火 元氣之本也 豈可謂之賊”, 此兩說皆各有理 不可偏廢. 緣君火妄動 相火熾然 即忿怒等火也, 欲動火炎 元氣傷耗 故謂之賊, 內經云 “壯火食氣” 是也. 若心君安泰 相火奉令 默贊化機 陰陽和平, 元氣賴以生長 故爲元氣之本, 內經云 “少火生氣” 是也.

東垣論其變 景岳道其常耳. 是故外感之與內傷 或寒或熱 必因人而變, 虛實陰陽 參互錯綜, 而治法隨宜 不可偏執也. - 以其火濕合氣而成 故病有陰暑·陽暑之異, 或稟質陽旺 或感受熱多 則成陽暑病, 或稟質陰虛 或感受熱少 則成陰暑病.

5) - 又問 豈不見仲景云 “太陽中暍者 白虎湯主之”? 白虎但能消火 而無去濕之藥 則暑非必有濕明矣.

答曰. 甚矣 子何固哉! 余所論者是暑氣非謂暑病也. 暑氣爲火濕相合而成 至其傷人 則又隨人稟質而變. 子豈不見余前論中云 “若人稟質多火 暑隨火而化燥乎? 燥火合氣 正爲白虎之證矣.

若稟體多寒 暑隨寒而化濕, 寒濕合氣 豈白虎湯所宜哉? 是故暑門古方 有大順散·冷香飲等 辛熱之劑, 又有六和·正氣等 溫燥之方, 又有桂苓飲 兩消濕法, 皆爲補仲景書之缺也.

6) - 且如仲景云 “太陽中熱者 渴是也, 身熱而渴 白虎加人參湯主之”, 此言太陽中熱 又身熱而渴, 是火盛化燥之證可知 故主以白虎. 其前條云 “太陽中暍 發熱惡寒 身重而疼痛 其脈弦細扎遲”, 試問身重疼痛 脈又弦細扎遲 是爲有濕乎 無濕乎? 其脈證如此 可用白虎乎 抑不可用乎? 略知醫理者 亦必能辨矣.

此條仲景未嘗有方 良由其書殘缺之故. 後賢謂 “宜淸暑益氣湯”, 亦可以備采. 然書雖殘缺 即此兩條觀之, 一爲火盛之暑病 一爲濕重之暑病, 病隨人之稟體變化 而暑之一氣 爲火濕相合而成 不亦顯然可見乎? 既引仲景之書爲證 何故但舉次條之白虎 而不察上條之身重疼痛 脈細之濕證乎?

2) 河間論 “六氣皆從火化” 原爲至理. 因火化 故以涼瀉主治. 然此止可論六氣之邪 未可論病. 以人體質不一 受邪雖同 而病變不同. 若謂 “六氣皆從火化”, 六氣之病 概用涼藥則誤矣. 或不明六氣變化之理 又見妄用涼藥爲害, 遂謂河間之論非是 而不自知味理, 各相抵牾 其弊更多也. - 火濕二氣 合而爲暑 故暑爲陽中之陰. 其證有陰有陽. 昔人言 “中暑爲陰證 傷暑爲陽證”, 又以靜而得者爲中 動而得者爲傷, 殊不知偏於火者爲陽 偏於濕者爲陰, 體強多火者成陽證, 體弱多濕者成陰證. 豈不簡明而曰中·日傷·日動·日靜! 如是支離 使人眩惑難解, 致有謂 “夏月患陰證傷寒者 六氣之雜亂不分也”. - 夫六氣由陰陽所化 仍不離陰陽之體. 是故寒爲陰 火爲陽 風爲陰中之陽 暑爲陽中之陰 濕爲陰, 而與火合則名暑 風與火合則化熱燥 屬陽 風與寒合則化清燥 屬陰, 斯陰陽變化 而成六氣之異也.

3) - 如寒邪始在陽經不解 傳裏而變爲熱邪 此陰邪隨人身之陽氣而變也. 若寒傷陰經 而不扶陽救, 本 以至吐利厥脫, 此身中陽氣 隨陰邪而亡也. 又如火濕合氣名暑, 人感暑邪 若稟體多火 則暑隨火而化燥, 稟體多寒 則暑隨寒而化濕, 此邪之陰陽隨人身之陰而變也.

4) - 又如風邪傷人 在冬令成傷寒病 春夏時成風溫病, 此邪隨時令陰陽而變也. 或冬傷寒 至春發爲溫病 此邪因久鬱而變也, 或溫病過服涼藥 變爲寒病 此因藥氣而變也. 有內熱而外反畏寒者 表陽被鬱也, 有內寒而外反發熱者 虛陽發露也.

을 받아들일 수 있고 陽이 旺盛하다면 火가 많아서 涼藥을 받아들일 수 있으며, 陽이 虛하면 쉽게 濕이 생기고 陰이 虛하면 쉽게 燥로 變하니 또한 自然히 同一하지 않으며, 그래서 六氣가 流行하는 것과 病이 되는 것은 本來 當然히 區別해야하나 사람의 體質이 각기 달라서 그 變化는 다 밝힐 수 없다고하여 韓藥의 應用에까지 이어지는 活用法을 主張하며, 사람의 타고난 體質에 陰陽의 強弱이 同一하지 않은 것으로 因하여 邪氣가 感受될 때 輕重이 같지 않으므로 病의 變化가 가지런하지 못한 이유를 재삼 說明하고 있다.

暑病의 陰陽證은 暑邪를 이루는 火濕의 外邪의 要因 외에 人稟體多火하여 燥火로 化하는 陽證인 경우, 人稟體多寒하여 寒濕으로 化하는 陰證의 경우로 구분하여 사람의 稟賦된 體質에 따른 變化를 말하고 있는데, 이런 稟賦體質의 상세한 내용이 內經에 잘 나타나며, 아울러 丹溪先生이 임상적으로 약간을 비추었고, 청대 名醫인 葉桂의 臨證指南醫案의 여러 곳에서 잘 나타남을 強調하여 말하고 있다.

2. 類型 形態體質論

여기서 章楠은 治病의 要領은 먼저 마땅히 사람의 體質의 陰陽, 強弱을 살펴야 하는데, 이 살피는 方法의 포인트는 그 사람의 形態, 氣象, 色澤, 脈象임을 말하고, 아울러 陽旺陰虛 體質, 陰陽具盛體質, 陰盛陽虛體質, 陰陽兩虛體質 등으로 葉桂의 臨證指南醫案에 흠어져서 나타난 내용을 정리하여⁸⁾, 스스로가 內經과

葉天士의 全身 形態 診斷에 立脚한 體質辨證論 精神을 이어받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먼저 陽旺陰虛 體質은 형체가 瘦瘠하고 中氣가 부족하고 弦脈이 많이 나타나며, 눈빛이 있는 편이나 일을 함에 피로를 잘 느끼며, 질병 발생에 火證이 잘 일어나는 것으로 滋陰清火의 治法을 행하며, 그리고 陰陽具盛體質은 형체가 풍부하고 肌肉이 厚重하여 脈이 盛하고 피부가 두텁고 거칠며, 평소에 잔병이 적으나 한번 병에 걸리면 邪氣가 깊어 들어가 重症이 쉽게 나타나므로 大黃 등의 重藥으로 重厚한 稟賦 素因을 해결해야 한다.

陰盛陽虛體質은 형체가 풍부하고 面色 등이 희며, 피부가 연약하고 肌肉이 무르며, 맥이 大而軟하며 식사를 많이 하더라도 가래가 많이 일어난다. 눈빛이 있으면 그나마 다형이나 그것마저 없으면 수명이 길지 않아서 中年에 中風 등의 질병이 발생한다. 비록 熱症이 나타나도 지나친 寒性 약재로 陽氣를 손상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는 미약한 陽氣의 離脫을 방지하고자 함이며, 열이 물러나면 溫補扶陽으로 마무리 해야한다. 마지막으로 陰陽兩虛體質은 형체가 瘦瘠하고 脈이 허약하며 음식의 섭취 또한 부족하여, 그나마 눈빛이 있고 耳輪이 重厚 端正하고 정신이 강하면 그래도 先天이 生氣가 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만약 눈빛이 약하고 정신력이 박약하면 생명력이 貧弱하여 항상 잔병을 많이 앓으므로 和平한 약으로 완만하고 조화롭게 치료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그는 傷寒傳經論에서 地方과 土質 및 古今의 六氣 變化에 適合한 治療의 說明에서 仲景의 麻黃湯을 예로 들면서 處方을 사용할 때 반드시 그 사람의 타고난 體質과 邪氣의 輕重을 판단함으로써 그 마땅한 與否를 살피는 것을 말하면서, 臨床에서 辨證이 힘들어서 暗記에 의한 方法으로 이루어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이런 論旨은⁹⁾ 論景岳書에서 六氣의 變化와 사람의 先天的인 源流에 대한 理解 不足을 言及하면서¹⁰⁾, 景岳의 지나친 扶陽論 偏執에 對한 批判에 活用되기도 하였다.

결론

章楠의 體質論을 전신형태론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章楠은 邪의 陰陽이 人體의 陰陽을 좇아 변한 예를 설명하면서, 六氣를 邪로 論하는 것과 病으로 論하는 것의 단계적인 區分이 必要하며, 邪氣가 人體를 損傷시킬 때 사람의 타고난 體質에 따라 病의 狀態가 變化하는 점을 強調하

7) 知此 亦可辨驗人之受邪 自上·自下異耳。但此言陰陽進退之氣也。若人身中 陰旺則多寒 能受熱藥 陽旺則多火 能受涼藥 陽虛則易生濕 陰虛則易變燥 又自不同。故六氣流行與爲病 固當區別，而人之稟賦各殊 其變化莫可窮盡矣。

答曰。人稟天地之氣而生 故人身之氣 與天地貫通 若魚之在水也。天地陰陽之氣有偏 或致阻遏 人身之氣不調而病 如魚之遇機水也。

夫氣機既至 則陰鬱而成痰涎 陽鬱而變壯火。其所感之邪 因鬱而變實有多端 莫能盡悉，或隨人身之氣而變 或隨時令之氣而變 或隨感而變 或久鬱而變 或竟不變 均無一定

大抵由人之稟賦 陰陽強弱不同 邪之感受 輕重不一 古參差如是也 即如傷寒傳裏變熱 此邪隨身中之氣而即變者也 如寒入陰經而即吐利厥逆 此邪之不變者也 如或久伏不發 因時氣觸引而病 此邪隨時令之氣而變也。以此推之 難以盡述。

夫寒爲至陰之邪 且能鬱而變熱 則彼五氣更可知矣 經曰，“風者善行而數變”，劉河間言，“六氣皆從火化”，良以風火爲陽而性動，或遇拂鬱則各氣從之而變化也。

8) 故人身稟賦 各有偏勝 強弱之殊 或有陽勝陰弱者 或有陰盛於陽者 或有陰陽兩弱者 或有陰陽俱盛者 如內經云 太陽少陽太陰少陰等人。推而廣之 類雖悉數 以陰陽之用 變化萬殊 故賊形各異。

若究其體 則渾然者 固無不同 以故用雖偏勝 而仍各遂生之道也。體有厚薄 則有用有強弱 而壽夭不齊 體有清濁 則有用有明昧而 賢愚不一，是以變化參差 莫可窮盡也。

夫醫爲性命所系，治病之要 首當察人體質之陰陽，強弱 而後方能調之使安，察之之道 審其形氣，色脈而已，形氣，色脈 ‘內經’論之詳矣。然未窺其蘊者 莫得其端緒，諸家方書 但論辨證，方藥，而察形色以辨陰陽之要者 多略而不講 無怪後學學成方以治病 每不能合。因其病雖同而人之體質陰陽，強弱各異故也。

雖丹溪略舉其概 ‘葉氏醫案’每論其端，而散見各條 人多忽之。今述其大略 由是類推審察 則論治，製方 稍有準則也。

假如形瘦色蒼 中氣足 而脈多弦 自有精彩 飲食不多 却能任勞 此陽旺陰虛之質也。每病多火，須用滋陰清火。若更兼 體豐肌厚 脈盛皮粗 食咳倍多 此陰陽俱盛之質，平時少病，每病多重，以邪蓄深久故也，須用重藥 如大黃 芒硝 乾瀉 桂附之類 寒熱之藥 彼俱能受，以稟賦能任削伐，若用輕藥，反不能效也。如體豐色白 皮膚肌鬆 脈大而軟 食咳雖多 每生痰涎 此陰盛陽虛之質，自有精彩 尚可無妨 如無精彩 壽多不永，或未到中年 而得中風之病，每病雖熱邪 藥不可過寒 更傷其陽，陽微則防其脫 熱退須用溫補扶陽。

若更兼形瘦脈弱 飲食不多 此陰陽兩弱之質，倘自有精彩 耳輪肉厚端正 其先天尚強 神清智朗者 反爲大貴，若目無光彩 神氣昏庸 必多貧夭。凡陰陽俱弱之質 常多病 却不甚重 亦不能受大補 大瀉 大寒 大熱之藥 但宜和平之味 緩緩調之 此大略也

若論其變 則有陽旺陰弱之人 而損傷陽氣者 宜先扶陽 而後滋陰，陰盛陽虛之人 而有傷陰者 宜先滋陰 而後助陽，斯當隨時審察 不可拘執，與後虛損論 互參其理 自可類推，不能盡舉也

9) - 試觀仲景之用麻黃湯 必詳辨脈證 脈證不合 卽示禁戒，... 凡用一方 必審其宜否 雖其人體質強旺 亦必辨其邪之輕重 隨宜設法 如麻桂加減之類 其辨析精微 用法圓滑 無以加矣 以其變化無窮 淺學不能領會 惟記持後人 某病用某方之說而已。

且治病不難於用藥 最難於辨證 後世之書 惟恐人不知方 但言“某病可用某方”諄諄再四 其所以爲某病 反置不講 以故淺學誦之 惟多記方頭爲本領 10) - 跡其“醫身”“大實論”等篇 皆似是而非之說 全書之病 實原於此 以至理未明 故不識陰陽六氣變化 人生稟賦源流。不識六氣之變 故論外邪證治 不切於理 而偏涉於補 不明稟賦源流 故論先天 後天皆錯而內傷證治 偏執扶陽

고 있다. 또한 治病의 要領은 먼저 마땅히 사람의 體質의 陰陽과 強弱을 살펴야 하며, 그 포인트는 사람의 形態, 氣象, 色澤, 脈象임을 지적하였으며, 아울러 陽旺陰虛 體質, 陰陽具盛體質, 陰盛陽虛 體質, 陰陽兩虛體質 등으로 葉桂의 臨證指南醫案에 흠여져서 나타난 내용을 정리하여, 스스로가 內經과 葉天士의 全身形態診斷에 立脚한 體質辨證論 精神을 이어받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辨證施治는 知人法인 個人的 特性에 대한 判斷이 필수적이며, 이런 知人法은 全身形態 體質診斷을 통하여 구체적, 실천적, 경험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生理, 病理, 診斷, 本草, 方劑, 經穴, 鍼灸 등의 기초이론과 各家學說 및 유파별 주장 등은 개체생리 병리론을 기반으로 하는 全身形態 體質論의 입장에서 재정리되어야 하며, 적용범주와 한계성에 대한 인식을 올바르게 가져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구체적, 실천적인 개체생리병리를 일반적, 추상적인 일반생리병리로 잘못 전환하여 전달하는 한의학의 교육은

개체생리 병리의 전신형태체질론을 중심으로 집행되어야 정통한 의학의 정신을 되살려 현재의 난국을 타파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1. 김경철 외2인, 전신형태 진단의 의의와 활용에 대한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16권5호, 2002, 10
2. 김경철 외2인, 전신형태 진단과 변증시치의 연계를 위한 섭계의 형태체질론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17권 1호, 2004, 2
3. 김중환, 김달호, 의문봉갈 의논편, 소강, 1995
4. 신순식, 섭계의 의학사상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5. 윤길영, 동의학 방법론연구, 성보사, 1983
6. 윤길영, 동의임상방제학, 명보출판사, 1985